

# 또 발견된 유해...유가족 “전면 재조사 필요”

## 무안공항 참사 - 8차 재조사 현장

### 유해 추정 1점·유류품 15점 추가 확인...성분 분석 국무조정실 “철저한 유해수습·원활한 소통” 약속

“언제까지 장례를 반복해야 하나. 1년이면 납도록 유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전례 보관 현장. 쌀쌀한 날씨에도 유가족들은 일정 거리를 두 채 전례 데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진행된 8차 조사에서도 유해 1점, ‘진상규명’, ‘방치된 유해’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 조끼와 모자, 그리고 굵은 표정이 현장의 무게를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전례 속에서는 여전히 유해가 발견되고 있다. 이날 진행된 8차 조사에서도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와 여러 유류품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유가족들의 상실감은 다시 깊어졌다.

이번 조사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 인력 약 50명이 참여했다. 조사팀은 지난 2월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공항소방대 뒤편에 모아둔 전례를 대상으로 정밀 재조사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됐다. 조사원들은 전례를 하나씩 파란 천 위로 옮긴 뒤 붓과 호미 등을 이용해 흙과 먼지를 제거하며 세밀하게 확인했다.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현장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전례 사이에서 웃으로 보이는 물품이 발견되자 순간 정적이 흐르기도 했다. 일부 유가족은 멍처 있는 흙을 손으로 만지고 고개를 떨궜고, 다른 이들은 흑시 놓친



19일 오전 10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된 8차 전례를 조사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기체 전례물을 분류하고 있다.

부분이 있을지 기대전화를 현장에 촬영하며 지켜봤다.

한 유가족은 “지난주 조사에서도 좌석 부근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발견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유해가 수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조사에서는 길이 2.5cm가량의 유해 추정 물체 1점과 유류품 15점. 머리카메라로 보이는 덩어

리 1개가 확인됐다. 머리카메라는 모근이 없이 절단된 형태로, 실제 인체 조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분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활주로 일대에서 수거한 전례를 컨테이너에 보관하며 분류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유해 추정 물체는 총 65점이며, 이 가운데 9점은 실제 유해로 판정됐다.

현장 한편에는 ‘활주로에서 멈춘 생명. 전례 속에 돌아왔다’, ‘유가족은 몇 번의 장례를 더 치러야 하나’, ‘방치된 유해 앞에 사과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놓여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수습과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유가족들은 단순한 수습을 넘어 사고 원인 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유해와 유류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참사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 재발을 막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사 현장을 찾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철저한 유해수습, 책임자 처벌, 유가족과의 원활한 소통을 약속했다.

김용수 2차장은 “송수롭게 생각한 다”며 “4월까지 공항 내부와 사고현장 주변을 완벽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사 종료는 ‘유가족들이 충분한 조사가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 오늘의 날씨

맑음	06:37	달림	06:59
맑음	18:44	달림	20:12



광주	☀️	2~16
목포	☀️	3~12
여수	☀️	6~16
순천	☀️	2~16
구례	☀️	1~17
광주	☀️	0~14
진남	☀️	3~16
진남	☀️	4~12
진남	☀️	2~17
진남	☀️	2~12

목포	미물(고)	02:14 / 14:39
	샘물(저)	07:36 / 19:57
여수	미물(고)	09:31 / 21:45
	샘물(저)	03:06 / 15:30

##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 로드맵 ‘속도’

### 8개 분야 실무TF 본격 가동...실행 과제 추진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통합 로드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18일 조선간호대 제3교사 종합인사관리시스템에서 양 기관의 통합 추진을 위한 ‘통합실무TF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통합 논의를 실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분야별 세부 과제를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8개 분야로 나뉜 실무TF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는 양 대학 주요 보직자와 실무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통합 추진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체계와 일정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또 중장기 통합 로드맵을 바탕으로 학사·행정·재정 등 주요 영역별 실행 과제를 점검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양 대학은 앞으로 TF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춘성 총장은 “이번 회의는 통합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희 총장은 “각 대학의 강점을 결합해 보건외교 분야 특성화를 심화하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며 “실무 중심 협의를 통해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분주한 육묘장 본격적인 농사철 앞두고 19일 전남 나주 산포 육묘장 온실에서 직원이 출하를 앞두고 있는 고추. 배추 모종에 물을 뿌려 주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 동구청~조선대 사거리 상습 정체 풀리나

### 30일 왕복 5차선 확장 개통 23일부터 구청 출입로 변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조선대학교를 연결하는 동구청~조선대 사거리 도로 확장 공사가 오는 30일 마무리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 해소가 기대된다.

19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와 동구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심지 도로망 기능 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왕복 4차로(폭 20m)였던 동구청~조선대 사거리 375m 구간을 왕복 5차로(폭 30m)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 확장 공사는 동구청 앞부터 조선대 정문 앞 사거리까지 이어지며, 기존 4차로를 가변형 5차로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구청에서 조선대 방향 구간의 인도 폭은 4.5m로 확대됐고, 가로수 식재와 신호등, 가로등, 도로 표지판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또 서석동 31-10 일원 약 80m 구간은 기존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다. 차로 체계 역시 조정돼 KT광주타워에서 동구청 방면은 직진·좌회전 1차선과 직진·우회전 1차선으로, 동구청에서 KT광주타워 방면은 직진 1차선과 우회전(동구청 정문 입구 전용) 1차선으로 운영된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1~22일 포장 도로 정비와 차선 도색 작업을 진행할 계



획이다. 앞서 시는 총 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 5~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고, 같은 해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건축물 철거를 완료했다.

하지만 2024년 4월 광주시 문화유산위원회가 공사 구간 내 광주유서 유적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급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종합건설본부 서석동 27-32 일원(586㎡)을 대상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해 고려~조선시대 유구를 확인했다.

이로 인해 공사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2024년 10월 국가유산청이 공사 진행을 허용하면서 사업은 재개됐다. 이후 광주경찰청과 동구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공사가 다시 속도를 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해 도심 교통난

## 베테랑 경찰특공대 총기 사고

베테랑 경찰특공대에 서약 10년간 근무 해온 베테랑 전술팀장이 훈련 중 총기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

19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7분 광주 광산구 삼도동에 위치한 경찰특공대 건물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

사고는 특공대 전술팀장인 A경위(45)가 건물 레일 훈련을 마친 뒤 권총 사격을 하고 총기를 홀스터(총집)에 넣는 과정에서 발생.

이 과정에서 총기가 격발되며 A경위는 오른쪽 허벅지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져.

A경위는 사고 직후 인근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빠른 혈관, 신경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총 방아쇠가 옷이나 장구류에 걸리면서 오발된 것으로 보고 총기의 탄창에 잠겨진 실탄수와 사격 상황, 표적물 개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미래국제고 유학생 비자 발급 4명...이달 말 입학·학교 편입

전남도교육청은 19일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전남 미래국제고 입학 예정자 중 4명에 대해 사증(비자) 발급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달 초 문을 연 미래국제고는 전체 신입생 52명 중 45명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용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결국 학교는 국내 이주 배경 학생 7명만으로 우선 학사 운영을 시작했다.

도교육청이 재심을 요청한 결과, 동포 자녀로 확인된 카자흐스탄 국적 학생 4명만 비자를 받았으며, 나머지 41명은 여전히 입학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비자를 확보한 학생들은 이달 말 한국에 들어와 수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입학이 허용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비자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추가 승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

## ‘보조금 횡령’ 5·18 공법단체 전 임원진 재판행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전직 임원진이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 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 전 공로자회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중 황 전 회장은 2023년께 다른 간부들과 공모해 정당한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자격 요건(운전면허)이 없는 직원들을 단체 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국고보조금 1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 남구청장 재임 당시 알고 지내던 의회 관계자의 자녀를 부상자회에 허위 채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허위 채용자는 부상자회 총정리부 등에서 실제 근무한 적이 없었음도 실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고, 국가보조금 1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정 전 공로자회장은 업무용 차량 구매 보조금 4000만원 중 차량 장기간 비용으로 지불한 차액인 32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직원들

## 30일 왕복 5차선 확장 개통 23일부터 구청 출입로 변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조선대학교를 연결하는 동구청~조선대 사거리 도로 확장 공사가 오는 30일 마무리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 해소가 기대된다.

19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와 동구 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심지 도로망 기능 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왕복 4차로(폭 20m)였던 동구청~조선대 사거리 375m 구간을 왕복 5차로(폭 30m)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로 확장 공사는 동구청 앞부터 조선대 정문 앞 사거리까지 이어지며, 기존 4차로를 가변형 5차로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구청에서 조선대 방향 구간의 인도 폭은 4.5m로 확대됐고, 가로수 식재와 신호등, 가로등, 도로 표지판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또 서석동 31-10 일원 약 80m 구간은 기존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다. 차로 체계 역시 조정돼 KT광주타워에서 동구청 방면은 직진·좌회전 1차선과 직진·우회전 1차선으로, 동구청에서 KT광주타워 방면은 직진 1차선과 우회전(동구청 정문 입구 전용) 1차선으로 운영된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1~22일 포장 도로 정비와 차선 도색 작업을 진행할 계